



새해 새 설계

整備 競争能力의 強化

한전기공주식회사

93년은 국내외적으로 변혁속의 한해였다. 우루과이라운드(U.R.)의 완전타결에 따른 개방화, 국제화와 정부의 개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등으로 불원간 정비시장이 경쟁체제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국내 원전의 일괄 책임정비는 물론 정비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무정지 연속운전을 위한 책임정비

94년은 세계제일의 정비전문회사 구축을 위한 한해가 되도록 무정지연속운전을 위한 책임정비, 정비기술향상, 계획 및 경상예방정비의 완벽한 시공, 시운전 정비업무 및 해외기술 교류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터빈분해 점검

국내 전력예비율의 증대는 우리 회사가 결정한 책임의식 및 정비활동의 강화로 전년도에는 1주기 무고장연속운전(OCFT)을 3기 달성하였고, 계획예방정비공사 8기 중 공기를 31일 단축하여 654,672,000kWh 만큼의 전력예비율을 창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무정지연속운전을 위해 사후 정비체제에서 예측진단정비형태로의 전환과 운전중정비(On Line Maintenance) 확대 시행, 부품교체정비(Block Maintenance) 확대 실시 등 정비방법을 개선하고 정비품질관리 활동강화, 전산화된 발전정비지원시스템(MAPS)의 확대 구축으로 한전기공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고장정지 Zero화를 위한 책임정비를 하고자 한다.

정비기술 향상

정비기술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하여 다음과 같

은 사업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경주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정비기술 수준과 경쟁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첫째, 정비기술자립 추진

정비기술자립 추진은 장기 정비기술개발계획(발전설비의 성능개선, 수명연장 및 독자적인 정비기술개발 등 82개 항목)중 금년도 개발계획인 용접 후 열처리 장비 등 7종의 장비를 확보하여 활용하고, 국내·외 전문업체와의 공동작업 수행으로 기술자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95년 이후에는 자립의 개념이 아니라 위에 기술한 정비기술 개발로 선진화를 이루고자 한다.

둘째, 정비기록관리체계 정립

외국인 기술용역 및 각종 중요 정비경험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여 정비기술을 축적하고, 기술개발촉진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94년도에도 각 사업장별 중요 정비기록과 외국인 기술용역 자료를 지속적으로 전산입력시켜 이의 활용도를 증진하고, 발전정비지원시스템(MAPS)과 연계 운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기술전문회사를 구축할 것이다.

셋째, 정비원 자질향상

지속적인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93년도에는 국내 교육 연인원 6,000명(1.5회/1인당), 교육훈련비 24.7억 및 해외교육 연인원 100명, 10.9억원을 투자하였으나 금년에는 약 20% 정도 투자를 증대시킬 계획이며, 또한 연수원 및 원자력훈련원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중장기교육훈련계획의 교육체제를 개선함으로써 분야별 고급인력의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별 전문인력 양성 및 유자격자에 의한 정비수행으로 정비품질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도 사내자격취득 목표를 61.6%로 설정하며, 이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자격등급 조정과 종목확대로 자격체계를 개선, 취득을 제고, 인사급여와의 연계 준비를 할 예정이다.

계획 및 경상에방정비 철저 시공

정비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소내 기기관리, 예방점검관리, 정비이력관리를 위한 발전정비지원시스템(MAPS)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정비편의시설 개선, 예방정비공사시 철저한 사전 계획 및 정비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정비품질 향상은 물론 공기단축으로 전력예비율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금년도 주요공사인 월성원전 핵연료 압력관 교체공사와 울진원전의 S/G Shot Peening 작업에 대비하여 해외연수 등 공사수행 능력을 배양하여 완벽한 정비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운전 정비업무확대

현재 영광 3, 4호기 시운전 정비를 성공리에 수행하고 있으며 Refueling team을 조기투입하여 핵연료 조기장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계측제어 정비분야도 직접 수행함은 물론 후속기에 소요될 인력으로 조기투입하여 원전 다수기 시운전 대비 기술인력을 육성하여, 설비의 대형화 및 첨단화 추세에 대비하고자 한다. 또한 금년에는 월성 2호기 시운전 정비업무에도 참여하여 고리 1호기를 시발로 하여 그간 국내원전 시운전 정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운전 정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해외기술교류 용역 확대

지난해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장기 엔지니어링 해외기술도입 계약으로 향후 4년간 기술교류 협정을 하였고, 특히 웨스팅하우스사와 공동으로 브라질 앙그라 원자력발전소 핵연료 재장전 공사에 2명의 기술자를 13일간 파견하여 해외원전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금년도 중국 광동원전의 정비 인력투입 등 국내에서는 흔히 기피하는 역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선진 외국시장에서는 고부가가치를 갖는 정비기술 교류 및 용역사업에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다.